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위화도 회군

Case : OL-27[1][2]

Date : December / 2015

[비 내리는 날 밤, 위화도에서]

왕의 명을 받아 5만여 명의 요동 원정군이 출발한지 20여일이 지난 5월 7일, 좌우군은 압록강 중간에 위치한 위화도에 도착하였다. 위화도에 다가갈수록 내렸던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5만여 대군은 위화도에서 몇 일째 움직일 수 없었다. 이성계는 영막 안에서 두 개의 장계를 읽고 심란한 한숨을 지었다.

이성계에게 전해진 첫 번째 장계는 서경의 팔도 도통사 최영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근자에 정보원이 요동에 다녀와 내게 보고를 올렸는데, 요동 군사가 모두 몽골을 치러 가고 성 안에는 다만 지휘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니 만일 대군이 이르면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장계는 자신의 휘하장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비로 인해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또한 이를 보고 강을 건너기가 어려울 것을 알고 도망치는 병사가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후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최영에게 장계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본 Case는 2015년 2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기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님의 지도 하에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송유정, 윤여홍, 이혜진, 조성현, 함태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들에게 있다.

[2] 본 Case는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사료 연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 야사,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허구적인 내용을 일부 차용하여 재구성 함.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 또 큰 강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 1여울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건너지 못하고 섬에 머무니 군량만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동성까지의 중간에는 큰 강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기가 어려울 것을 알고 도망치는 병사가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 상태에서 견고한 성을 공격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군량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3]

최영은 이성계에게 다시 장계를 보냈고, 이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니성(평안북도 창성군 지역의 옛 이름)원수 홍인계와 강계(평안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군) 원수 이의가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들어가 명군을 살육하고 물자를 노략하고 돌아와 왕께서 기뻐하여 이들에게 후하게 포상하였다. 도망병들은 현지에서 참 하도록 하라."[4]

이성계는 이 장계를 읽은 후 자신의 영막에 장수들을 소집하였고, 이성계의 영막 안에 장수들이 모여 의논했다. 배극렴이 장수들을 부추겼다.

"이 시중,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고려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오?"

이성계는 듣고만 있었다.

"아니 될 말씀, 군인은 명령을 따를 따름이오. 신하 된 자로서 왕명을 어기면 역적이 되는 거외다."

정지가 반대했다.

"이보시오, 정장군! 굳이 꼭 명나라와 싸워야겠소?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며 정세를 관망해봄이 어떠하오?"

배극렴이 정지를 달랬다.

"기다릴 것 없소이다. 고려를 망치는 자는 최영이외다. 최영의 머리를 베어 명나라로 보내고 승산 없는 싸움을 막아야 하오."

이방원이 단호히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장수들이 이방원의 말에 찬동하며 수군거렸다.

"싸움을 그만두고 최영을 없애버립시다!"

이때 환관 김길상과 김길봉이 영막 안으로 들어왔다. 김길상이 이성계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

[3] 변희룡,「위화도의 장마」, 대기 제8권 2호, 한국기상학회, 1998, p14~17.

[4] 이윤섭, [역동적 고려사], 필맥, 2004.

"장군! 임금과 최영이 서경 어디에 있는지 잠적해버렸나이다."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이더냐?"

"서경 어디에선가 놀고 있다 하옵니다."[5]

"한심하구나. 나라의 흥망이 걸린 이 시점에서 놀이라니..."

이성계는 임금에게 요동 정벌의 불가함을 글로 써서 김길상에게 주었다.

[고려 말 사회, 경제적 상황]

고려 말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14세기 중반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몽골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한족의 농민 출신들인 홍건적들이 고려에 계속적으로 침입하였다. 북방으로는 홍건적들이 들끓어 고려 사회가 어지러워지던 차 왜구의 침공은 고려 남쪽 마을들을 넘어 더욱 격해졌으며 그 정도가 강화도까지 올라와 약탈을 일삼고 개경을 넘볼 정도로 심각했다. 배를 통해 세금을 운송하던 고려는 왜구들의 침략으로 인해 해상운송에 차질을 겪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6]. **(Exhibit 1)**

이처럼 고려가 외부적으로 홍건적과 왜구로 인해 몸살을 앓던 시기에 당시 정계를 휘어잡고 있던 권문세족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무신정권의 붕괴 이후 원 간섭기에 세력을 확장했던 권문세족들은 공민왕대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잠시 감소하였으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이인임이 권력을 잡으면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이들은 정계 주도세력으로써 백성을 보살피거나 국방을 강화하고 국고를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폐단을 야기 시켰고 국가를 병들게 했다. 그들은 고위관직을 독점하였고, 이를 세습하기 위해 음서를 악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대농장을 경영하였으며 이러한 농장 경영을 위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화시켰다. 백성들의 노비화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민의 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더하여 권문세족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귀속되는 토지와 인구는 면세, 면역 대상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노동력을 동원함에 있어서도 큰 차질을 겪었을 것임은 너무도 명백했다[7]. 이러한 권문세족들의 횡포는 우왕 즉위 후 이인임이

---

[5] 최범서, [야사로 보는 고려의 역사2], 가람기획, 2005.

[6] 최봉준,「고려 우왕대 사대부의 성장과 분기」,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학림 24권, 2003, p.53.

[7] 최봉준,「고려 우왕대 사대부의 성장과 분기」,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학림 24권, 2003, p.53.

권력을 잡으며 그 정도가 극에 달하였다. 이는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금 부상시켰으며 고려의 윤리적, 경제적 기반을 거세게 흔들었다. 이러한 권문세족들의 독주는 지배층 내부에서의 첨예한 갈등의 발생을 낳았다. 특히 공민왕대 개혁정치를 지지하며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에 맞서 낡고 부패한 관습들과 제도를 뜯어고칠 것을 주장하였으나 권문세족에게 밀려 중앙 정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탈,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약탈로 인해 백성들은 몸살을 앓았지만, 하늘은 가여운 이들을 돕지 않았다.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계속되었고, 불쌍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 더 궁핍해졌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굶주림에 차라리 노비가 되는 길을 택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며 많은 장군들이 급부상하였다. 이들은 신흥무인세력으로, 백성들이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건적과 왜구 세력들을 격퇴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잇따른 전투에서의 승리로 신흥무인세력들에 대한 신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 되었다.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고려후기의 집권 세력으로 무신정권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무신정권이 붕괴하자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 무신 집권자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접수한 이후, 백성들에게서 약탈과 강점을 통해 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고 원과의 결탁을 통해 당시 최고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권문세족의 횡포는 충렬왕 때 가장 심각하였다. 이후 충선왕과 충목왕이 폐단을 바로잡고자 개혁정치를 시도하였으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하지만, 공민왕대에 접어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된다.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들을 앗아갔으며 이에 따른 반발이 이어지자 공민왕은 신돈을 주축으로 권문세족을 정치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개혁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공민왕과 신돈은 새로운 정치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돈이 제거된 이후에도, 공민왕은 친명 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당시 권문세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돈을 도와 개혁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인임은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민왕은 모니노를 세자로 책봉하려 할 때 이인임이 크게 반대하자 이인임을 내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이인임은 크게 반감을 품었으며 이후 공민왕이 최만생, 홍륜 등에 의해 시해되자 이인임은 공민왕의 아들 모니노를 우왕으로 즉위시킨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 세력은 이전 개혁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와는 달랐다. 공민왕의 충직한 개였던 이인임은 "앞으론 이 나라의 임금을 나 이인임의 개로 만들 것이오."라 그의 시신 앞에서 선언[8]한다. 이후 이인임 세력은 충신 최영 장군과 이성계에 주목, 북원과 명나라의 갈등이 고려에게 이롭다고 주장하며 최영을 꾀었고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와 지윤의 딸을 결혼시키면서 고려 왕조를 장악, 정치적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갔다. 또한 그는 양국외교[9]를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지윤, 임견미 등과 권력의 요직에 앉아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뇌물을 받으며 매관매직을 하는 등 고려 왕실과 백설을 수탈했다. 하지만 이처럼 고려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던 이인임도 결국 끝을 맞이한다. 이인임 일파는 장성한 우왕과 변심한 최영, 이성계의 합세로 숙청당하고 만다.

[우왕]

우왕은 공민왕이 시해되자 이인임 등의 주장을 따라 10세로 즉위하였다. 정사에 따르면, 우왕은 초기에 무방, 홍중선, 권중화 등을 사부로 경연을 열어 학문을 청강하고, 명덕태후의 훈계를 받아 국사를 잘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왕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이인임, 임견미 등이 그를 오락으로 꾀어내었고, 1380년 명덕태후가 죽자 사냥과 음주 가무로 소일을 하며 음탕한 도색을 즐겼다.[10]

하지만 야사에는, 우왕에 대한 다른 평가가 전해진다. 우왕은 원래 어릴 적부터 포부가 큰 인물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권신들의 횡포에 시달렸지만, 그는 꾸준히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조반의 옥사를 기회로 하여 일거에 권신들을 숙청할 정도로 과단성도 지니고 있었다. 우왕은 일찍부터 요동 원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어느 날 우왕이 정몽주의 집에 가니 마침 정몽주가 기로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최영이 술잔을 들어 권하니 우왕이

---

[8] 김지희,「고려 우왕대 신진사대부의 동향」, 한국어와 문화 Vol.6, 2009, p.31~32.

[9] 김지희,「고려 우왕대 신진사대부의 동향」, 한국어와 문화 Vol.6, 2009, p.33.

[10] 출처 : 한국학 대백과

말하기를 "내가 술을 마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네. 부왕 때의 늙은 재상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부왕을 보는 듯하여 온 것이네."하고 또 말하기를 "나무가 먹줄을 쫓으면 곧게 되고 임금은 간언을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들었네. 경은 나라의 이해에 관하여 말해 주게나. 술은 마시고 싶지 않네."라고 했다. 최영이 갓을 벗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하의 이 말씀은 국가의 복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한 신이 앞서 올린 편지에 아뢴 것을 실행하시기를 비옵니다." 우왕이 매우 기뻐하여 통음하고 최영에게 활을 주고 말하기를 "경과 함께 사방을 평정하고 싶다."고 했다.[11]

[최영]

최영은 사헌규정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 양광도 도순문사의 휘하에 들어간 최영은 왜적을 물리친 공으로 임금을 호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우달치에 임명되었다. 1356년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공략 당시 서북면병마부사로 인당, 신순 등과 함께 8참을 공격하여 파사부 등 3참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공민왕 7년(1358) 동북면체복사를 거쳐 이듬해 양광, 전라도 왜구체복사에 오른 최영은 오예포에 쳐들어온 왜선 400여 척을 격파하는 등 서, 남해에서 노략을 일삼던 왜구를 섬멸하였고, 이때부터 백성들 사이에 영웅으로 추앙 받기 시작했다. 최영이 서북면도순찰사에 오른 1361년 홍건적이 10만 대군을 앞세워 또다시 고려에 쳐들어왔고, 홍건적의 선봉이 개경 가까이에 이르자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도성 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되었지만 이듬해 최영은 정세운, 안우, 이방실, 이성계 등과 개경을 포위하고 홍건적을 대파하여 도성을 되찾았고, 남은 무리들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공으로 최영은 일등공신에 책봉되어 공민왕으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고 전리판서에 올랐다. 공민왕 12년(1363) 김용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은 우제, 안우경, 김장수 등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흥왕사에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공민왕을 무사히 구출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최영은 이 공으로 진충분의좌명공신이 되었고, 뒤이어 판밀직사사 평리를 거쳐 찬성사에 올랐다.

최영은 신돈의 참소로 좌천된 뒤 자칫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으나,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반역을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참수된 후 문하찬성사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어 1373년, 육도순찰사에 임명된 최영은 장수와 수령의 승진과 퇴직은 물론 군적을 작성하고 전함을 건조하며 죄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1381년 최영은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하수시중에 올랐다. 우왕 14년(1388) 문하시중에 오른 최영은 우왕의 밀령을 받아 부정부패를 일삼던 염흥방과 임견미 일당을 숙청했다. 이 때 우왕이 최영의 딸을

[11] 이윤섭, [역동적 고려사], 필맥, 2004

비로 맞아들이면서 최영은 왕의 장인이 되었다.[12]

이처럼 최영은 공민왕대에 중앙정계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세력을 키우며 입지를 다져왔다. 결국에는 고려 말 우왕 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인임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왕의 장인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려 최고의 새로운 권력자로 떠올랐다. 고려의 장수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고려 중앙정계의 핵심적 인물로 부상한 백전노장 최영을 믿고 따랐으며 우왕 역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최영을 매우 신뢰하였다. 이처럼 최영과 우왕 사이의 관계가 두터워지자, 중앙 정계에는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무리들로 점점 채워졌으며 감히 반대하는 자들이 나서지 못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이성계는 함경도 영흥에서 아버지 이자춘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1335년 (충숙왕 4년) 출생하였다. 그 후 이성계는 유년, 성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경도 즉, 동북면 일대에서 지내게 된다.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는 전주 출신이었으나 고을 수령과의 마찰로 함경도로 피신하게 된다. 그 후 고려에서의 삶이 어려워지자 일가를 이끌고 원나라로 귀화, 원나라에서 동북면 일대의 마을을 관리하는 천호 직위를 사사 받아 관리로 지내게 된다. 하지만 공민왕 시절 원의 세력이 약화되는 원명교체기에 이성계의 부(父)인 이자춘은 고려귀화를 선택하게 되고 쌍성총관부 수복에 공을 세워 동북면병마사를 제수 받는다. 이후 이성계가 이를 이어 동북면(함경도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 받는다(공민왕 10년 1361).[13]

그 후 이성계는 나하주의 침입 격파, 덕흥군의 침임 격파, 삼선, 삼개의 난 진압, 지리산 전투, 황산 전투, 호바투 격최, 함주 전투 등 수많은 전장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성계는 전투를 겪을 때마다 휘하의 장수들과 전투에 대해 회의하여, 실수는 바로잡고 승리의 주된 이유에 대해 되새겼다. 또한 요동과 가까운 동북면 출신이기에 요동방면의 전투에는 이성계가 장수로 출전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이를 통해 이성계는 요동방면 전투에 가장 많은 경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장수로서의 자질은 이성계가 부하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외세들에 의해 고통 받던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집안의 내력으로 인해 동북면 이외에는 동맹세력이 거의 전무했다. 또한 이성계의 강력한 가별초 소유로 인해 중앙정계에서는 이성계를 견제하는

---

[12] 송은명, [인물로 보는 고려사], 시아출판사, 2010.

[13] 박용운, [고려시대 연구],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356

세력이 늘어났고, 그의 강한 군대는 역설적이게도 이성계가 정계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앙의 문신들은 이성계 가문이 원나라에서 관직을 지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와의 결탁을 시도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개혁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 향리의 자제들을 과거제를 통해 중앙으로 등용하며 형성된 새로운 세력이었다. 그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실천윤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리론과 명분론을 내세우며 당시의 강력한 집권세력이었던 권문세족과 대립되는 정치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그가 시해되면서 성장하고 있던 신진사대부들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었으며, 이인임의 집권은 정계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약화시켰다.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에 맞서기 위해 우왕대에 이르러 이성계와의 동맹을 시도한다. 이들의 동맹은 신진사대부의 일원이었던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보수 친원을 반대하다가 유배 당했던 정도전은 유배 후에도 정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계로의 복귀를 위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정도전은 함주 군영에 있는 이성계를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세력의 결탁은 시작되었다. 그 후 신흥무인세력을 대표하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도전의 결탁으로 인해 두 세력들은 함께 성장하며 그 힘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이성계는 정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혼인을 이용했다. 주로 권력이 강한 집안과의 혼인을 통해 인척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출신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그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혼인 중에는 이인임과 인척이 된 혼인도 있었다. 이성계는 성주 이씨인 이인립의 아들 이제를 맏사위로 맞아들였고, 이인임은 이인립의 형이었으므로 이인임과도 인척이 되게 되었다[14].

그 후 이인임의 독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에게 힘을 합해 이인임 세력을 축출할 것을 제안하고 이성계는 그들의 계획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우왕, 최영, 이성계는 당시 이인임 세력의 주축이었던 염흥방, 임견미, 왕복해 등을 처단하고 그 일파를 유배시켰으며 이인임 또한 경산부로 유배시켰다. 이후 이성계는 그 공을 인정받아 수문하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15].

---

[14] 신봉승, [혁명의 조건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 신본승 實錄歷史小說], 선, 2012 p243

[1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철령위 문제]

당시 중국의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13 세기 이후 백 여 년 간, 원에 지배를 받았던 고려는, 공민왕의 즉위 이후 내부의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외부로는 동녕부와 쌍서총관부 등 과거 원에 빼앗겼던 고려의 북방 영토를 찾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중국 대륙 남쪽에서 일어난 명나라와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고려의 생각과는 달리 우왕 13 년인 1387 년 12 월,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은 과거 원나라에 속했던 영토는 모두 명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와 함께 철령 이북 지역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명의 요동도사가 보낸 이사경 등이 압록강을 건너와 "호부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철령 북쪽과 동쪽, 서쪽이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이므로 이곳에 속해있던 군민으로 한인, 여진인, 달달인(타타르인), 고려인은 종전대로 요동에 속하게 한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실권자였던 수시중 최영은 처음에는 여러 재상들과 명을 공격할지 화친을 청할 지를 놓고 의논했고 거듭된 회의 끝에 전쟁보다는 화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어 사신 설장수가 명에서 귀국하여 황제의 전언을 전하자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홍무제는 "철령 북쪽은 원래 원에 속했으니 모두 요동으로 귀속시키고 개원과 심양, 신주 등지의 군사와 백성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라"고 고려에 요구하였다. 이에 다시 열린 재상 회의에서 철령 북쪽의 땅을 명에 넘겨줄 수는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우왕은 정당문학 곽추와 밀직제학 박의중을 명에 보내 철령 북쪽의 땅이 원래 고려의 영역이므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청했다.

3 월, 서북면도안무사 최원지가 '명의 요동도사가 지휘 두 사람을 보내 군사 1 천여 명을 거느리고 강계(압록강의 경계)에 철령위를 두고 요동에서부터 철령까지 10 리 간격으로 70 여 곳의 역참을 설치, 역마다 1 백 호씩 주둔하려 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어 명의 후군도독부에서 왕득명을 보내 철령위 설치를 고려에 통고하였다. 최영은 노하여 명의 방문을 가지고 고려의 양계에 온 명군 병사 21 명을 죽이고 이사경 등 5 명은 현지에 잡아둘 것을 명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몇몇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미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원을 멀리하고 명나라와의 화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고려 조정은 막강한 신흥 세력인 명나라와 외교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파(主和派)와 명나라의 지나친 요구에 반감을 품고 요동을 쳐 실력행사를 하자는 주전파(主戰派)로 의견이 갈렸다.

[요동 정벌의 시작]

우왕과 최영은 반대를 무릅 쓰고 은밀하게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우왕은 그에 앞서, 장수들을 잇달아 서북 국경지대로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했고, 개경의 장정들을 군사로 징발했다. 이성계가 왕이 머무르고 있는 봉주에 도착해보니 주변이 각 도에서 선발대로 올라온 수천 명의 병사들로 북적거렸다. 그에 반해 서해도와 평안도 백성들은 왕의 일행을 영접하느라 농사를 망쳐 고통스러워했다.

우왕 14년(1388) 4월 1일,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과인이 요동을 치려하니 경들이 힘을 다하시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원정을 강행하는 것은 곧 실패할 싸움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현재 고려의 국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고려의 백성들과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여 그는 이른바 4불가론을 내세워 출정을 반대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니 첫 번째 불가한 것이요, 농사철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온 나라를 들어 원정을 하면 왜구가 그 틈을 타서 침입할 것이니 이 것이 세 번째 불가한 것이요,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이므로 활에 아교가 녹아 풀어지는 것과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 네 번째 불가한 이유입니다." **(Exhibit 2)**

이성계가 물러나며 최영에게 말하기를 "명일에 이 말을 다시 아뢰시오."라고 하니 최영이 대답하길 "그리 하겠소"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밤에 최영이 우왕에 다시 들어가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했다.

다음 날 우왕은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원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성계는 최영을 바라보았지만, 최영은 시선을 회피했다. 주변의 대신들이 왕의 명을 따르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성계는 다시 한번 우왕에게 원정 연기를 권했다.

"전하께서 꼭 대계를 이루려면 서경에 머물러 가을을 기다려 출사하십시오. 곡식이 들을 덮을 때이니 대군의 식량이 풍족하여 북을 울리며 진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으므로 비록 요동의 성 하나를 함락시킨다 해도 한창 비가 오니 군사가 전진할 수 없고 지치게 되며 양식이 떨어져 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으나, 최영은 우왕에게 원정 강행을 고집했다. 이성계가 물러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 부하 장수들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하였다. 이성계가 말하기를 "백성들의 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영, 그 역시도 요동 정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명은

북원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명의 주력군은 몽골 방면으로 출정 중이었고 요동에 주둔했던 명군도 대거 참전했으므로 요동에 배치된 명군은 소수였다. 최영이 농번기임에도 원정을 서두른 것은 병력의 공백을 노려 요동의 정벌을 노렸기 때문이었다. 우왕은 최영의 말에 따라 서경에 머물면서 군사를 징집했고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승병을 징발하여 병력을 보강했다. 실제로 고려의 출병 소식을 보고 받은 주원장은 크게 당황하여 친히 종묘에 나아가 전쟁의 길흉 여부를 점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최영은 원정을 일단 강행하기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요동을 정벌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요동정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왕의 장인이자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만 했는데, 국력을 모으기 위해선 각지에 흩어져있던 귀족들의 군대 및 향관들의 사병을 한 곳으로 모아 왕의 군대로 재편성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귀족들 및 향관들의 반발을 막을만한 그럴듯한 구실이 필요했고, 요동정벌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성계의 군대였던 가별초는 이성계의 사병과 마찬가지였으며 그 힘 또한 매우 강력했다. 이 때문에 최영과 중앙 세력의 입장에서 가별초는 이성계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 수하에 그대로 놔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꼭 흡수해야 할 강력한 집단이였다. **(Exhibit 4)**

[대내외 상황]

당시 명은 원과 대립 중이었다. 북원 정벌에 명나라 장수 남옥이 지휘하는 명의 주력군 15 만이었고, 그 외에도 5 만의 군사가 동원되었다. 반면 고려의 경우, 중앙군 5 만, 주현군 3 만이 등록되어 있었던 현실이었다. 이마저도 병적에 이름이 오른 인원을 말하며, 실제로는 왜구의 약탈로 죽거나 포로가 된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영은 정명을 주장하였다. 최영은 자신의 풍부한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비록 여건이 불리할지라도 속공전을 편다면 고려군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명군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영은 요동지역의 군대가 모두 오랑캐 정벌에 갔기 때문에 성중에는 오직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있을 뿐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약 고려의 대군이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16]

---

[16] 김인호, 조선왕조실록 태조 원년 7월 17일 - 우리가 정말 몰랐던 고려 이야기, 자작, 2001.

반면 이성계는 최영보다는 전쟁의 경험이 적었지만 그 또한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험을 통한 판단에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였기에 요동정벌을 위한 원정에 반대하였고 진군을 망설였다. 그는 병력의 공백을 감안하였다. 만일 요동 정벌에 성공하여 요동을 잠시 점령하더라도, 고려는 현실적으로 많은 군사를 요동에 배치할 수 없을 것이었다. 삼남 지방에 잦은 침입을 일삼는 왜구 또한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 차례 언급되었듯, 당시 고려의 국내외 상황은 좋지 않았다. 문벌 귀족, 권문세족, 불교로 대표되는 구 세력의 수탈, 그리고 몇 년 간 계속된 외적의 침입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했으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며, 만일 성공하더라도 요동을 점거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출병 당시]

요동 정벌을 위한 준비는 하나 둘씩 준비되고 있었다. 고려의 요동정벌을 위해 좌우군 3만 8830명, 수송대 1만 1634명, 말 2만 1682필이 동원되었다. 이성계는 거듭 출병을 반대하였지만 최영은 요동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성계와 그의 가별초가 필요했다. 최영이 이성계를 불러, "경의 생각도 일리는 있으나, 왕께서 이미 뜻을 굳히셨으니 혼신을 다해 명을 받들라"고 하였다. 이성계의 이복 형 이원계 또한 왕명에 따라 요동으로 출정하기를 권하니 이성계가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우왕은 최영을 팔도도통사로 조민수를 좌군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임명하여 요동 정벌군을 이끌도록 하였고, 본인이 직접 평양까지 나가 군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정작 팔도도통사인 최영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 하도록 하였다. 최영은 거듭해서 정벌군과 함께 요동으로 가기를 바랬으나, 우왕은 확고했다. 국내에서의 역모를 걱정한 우왕의 고집으로 인해 최영은 결국 전선에 나가지 않고 평양에 머물렀다. 우왕은 아버지인 공민왕이 반란으로 시해된 과거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5월 21일, 이성계에게 왕명이 도착하였다. 왕명의 내용은 회군은 절대불가하며, 조속히 요동을 정벌하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장마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섬 주변의 강물은 계속 불어나 섬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수위까지 올랐다. 이렇게 위화도에만 있다가는 전군이 수장 당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성계는 요동을 정벌할지, 회군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 내일 아침 전군에게 명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잠은 오지 않았고, 영막 밖은 빗소리만 가득하였다.

[Question]

I. 고려 말 당시의 정치상황 및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II. 고려 말 당시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성향과 그들이 요동정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태도 및 주장을 제시하고 그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과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고수했던 이유에는 무엇들이 있었는지 제시해보자.

III. 만약 당신이 더 나은 고려의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동정벌에 대해 찬성할 것인가? 혹은 반대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 각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묶어서 행동의 당위성 혹은 한계에 대해 제시하여 보자.

[Exhibit]

(Exhibit1.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경로)

(Exhibit2. 이성계의 4불가론)

以小逆大 -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

夏月發兵 - 농번기인 여름에 출병하는 것

擧國遠征, 倭乘其虛 -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허를 노릴 염려가 있는 것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 장마철에는 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Exhibit3. 이성계 초상화)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hibit4. 이성계의 군대의 성격 설명)

가별치 라고도 하는 가별초의 어원은 몽골어로 사병을 뜻하는 가베치였다. 가베는 활, 치는 사람 즉, 활을 쏘는 사람을 의미했다. 이러한 가별초는 지방의 유지, 왕가가 사적으로 부릴 수 있는 병사들을 의미하지만 이성계의 가별초가 가장 규모가 크고 전과가 혁혁해 가별초는 이성계의 사병 집단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성계의 가별초는 4천여명 정도로 고려인이 대다수였지만 여진족, 한족, 몽골인, 심지어 왜인도 가별초 구성원의 일부였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중무장한 기마부대였으며 전장을 많이 경험한 인원들이었다. 그리고 이성계의 가별초는 지방 관리들도 사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성계 1인에게 충성심이 아주 강했었다.

(Exhibit5. 최영장군 영정)

(출처 : 문화콘텐츠닷컴)

(Exhibit6. 시대별 요동정벌 시 국내/외 상황)

위화도 회군 1 년 뒤 -
상황은, 명나라는 북원 정벌을 끝낸지 1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원나라 잔당 세력을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명의 정벌군 20 만은 수도인 남경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명은 북원이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 서몽골, 동몽골로 나뉘자, 굳이 스스로의 전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강행하였다면, 명의 주력군 병력 20 만은 요동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조선 초기 –
정도전은 조선 초기 시절, 황권 다툼으로 명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외부에 일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오자, 태조에게 요동 정벌을 주장하며 군을 일으킬 것을 건의한다. 태조 또한, 요동 정벌을 지지하며 구체화를 시키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계획이 무산된다. 제 1 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세력이 숙청되고, 태조 또한 권력에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변수 없이 요동 정벌을 강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점령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북원 세력이 자멸하는 시점에 맞물려, 명나라는 군사강국의 최정점을 찍는 '영락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영락제 : 대표적으로 '정화'라는 환관에게 명을 내려 해양세력 확대를 명한다. 원나라 잔존 세력이 남하가 빈번해지자 수십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북진을 했다.)

(Exhibit7. 공민왕 대에 수복한 지역)

(Exhibit8. 당시 위화도의 지형[17])

- 세조 10년(1464) 8월 실록에 기록된 우의정 황수신의 말을 살펴보면, "위화도는 압록강의 갈라지는 물길이 빙 둘러 감싸고 물이 깊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우나, 날씨가 가물 때는 겨우 7,80보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 동년 11월 17일 평안도 순찰사가, "압록강의 흐름은 위화도를 빙 둘러서 적강에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 나누어지는 첫 머리는 땅이 높고 물이 얕아서 인마가 통할 수 있으니, 이를 파서 강의 흐름을 깊고 넓게 하여 농민이 적의 침략을 겁내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자."라고 보고하자, 이듬해 세조는 위화도를 경작할 것을 명하며, "위화도는 큰 강으로 경계가 막혔으니 도적을 막기 위해 목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성종 17년(1486), 의주목사가 "위화도라면 물이 깊어서 도둑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므로, 둔전을 개설하게 하자."고 상소하자, "위화도는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경작하였는데, 2년 전 방비를 게을리 하여 적이 농민을 약탈해 간 이후부터 경작하지 않았다. 수비를 튼튼히 하고 경작을 시작하라."고 하였다.
- 이를 통해 위화도는 한반도 쪽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나 중국 쪽에서는 압록강의 큰 물줄기를 건너야 하는 장소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뭄 때에는 중국 쪽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통로가 생겼던 듯하다.

---

[17]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발췌해 옮김.

(Exhibit9. 요동 원정군의 행군속도[18])

구분	경로	거리	소요시간	1일 행군거리
진군	평양-신의주	500리 (약 200km)	20일	25리 (10km)
회군	신의주-개성	1,000리 (약 400km)	10일	100리 (40km)

[18] 이상훈,「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전투」, 국학연구 제 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